

2020 가족주일

가족! 쉼 그리고 숨

1. 가족 땅의 기초.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회의 기초적 단위라는 것이다. 기초란 토대와 같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세워지는 '기초'이다 (반석위에 세운 집, 모래위에 세운 집의 비유).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인 '가정'의 붕괴에 있다. 기초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항상 위태롭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가족'을 주셨다.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 땅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되었다.

2. 분쟁

죄의 유입으로 나타난 현상은 '가정 안에 분쟁'으로 나타났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의심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전가한다. 이들의 분쟁은 결국 땅의 기초인 가정을 흔들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2:25]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5 ~ every city or household divided against itself will not stand.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한 문장에 집약하신 말씀이다. 나라가 황폐해지는 원인도, 도시나 집이 서지 못하는 모든 원인도 분쟁에 있다.

분쟁을 영어로 보면, 서로 반대(적이되어) 하여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 나뉘는 것이다. 그 위에 무엇을 세워도 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이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깨어진 가정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살지만 '역기능적 구조'를 가진 가정이 증가되고 있다. 아무리 기술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발전하고, 화성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3. 부모없는 세대의 증가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 '돌봄',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는 부모 없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반국에 가보면 부모 없는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왜 이런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부모의 책임회피이다.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어떤 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의 역할을 한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건축물의 뼈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건축물은 언제든지 무너진다.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돌봄 아래에서 아이들은 '존중과 공경과, 도(道)와 가치'를 배운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다. 존중하여 소중히 여기는 일을 배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재이다. 이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된다.

[디모데후서 3:1-4]

-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기록하지 아니하며
-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가정의 분쟁 때문이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있다.

4. 가족! 쉼 그리고 숨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강제적 쉼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알코올 소비와 중독자가 늘고, 가정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결과는 가정폭력의 증가로 나타난다. 무엇이 문제인가?

(1) 쉼을 모르는 세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정을 돌볼시간 없이 열심히 일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내 가족이 그래도 넉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맞는 말 같다. 그러나 아니다.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죄인들은 스스로 쉼을 만들 수 없다. 죄성은 언제나 분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무너진다. 속으면 안 된다. 쉼은 돈으로, 권력으로, 성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쉼'이 되어 주셨다. 세울 수 없는 것을 향해 질주하여 달리는 내 인생에 쉼표로 개입하셨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부터의 멈춤을 의미한다. 눈이 떠지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래서 돌이키게 된다. 그 예가 바로 탕자이다. 탕자가 결국 쉴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이다. 조건없이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탕자의 삶이 변화되었다.

(2) 새로운 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멈춤과 쉼은 '변화'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영의 호흡을 하게 된다. 진짜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된다.

(3)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숨을 쉬는 가정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예수님 보다 우선순위로 두었던 모든 가치를 뒤로 하라.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두었던 가치가 결국 그 가정의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다. 예배를 세우라. 그 예배가 우리 가정의 쉼이 되고, 숨이 되게 하라. 예배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세워 사용하신다. 명심하라.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라.